

# 영광 전기차업체 사칭 27억 사기극

## “비상장 주식 큰 돈 번다” 200여명 유인 다단계 넷 검거

### 경찰 “투자자 4000명 넘어 피해 500억”

영광 대마산단 내 전기자동차 업체  
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대규모 투  
자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일 경찰  
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형  
사처벌 대상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투자자도 4000명여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영광경찰은 영광 대마산단단지 내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관계자로 사칭,  
일반 투자자 192명에게 27억원 상당  
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  
업체 자회사 전 직원 최모(54)씨와  
전모(6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

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강모(68)씨  
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한  
의사 여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  
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전기자동차 생  
산업체인 A사 고문과 실장을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액면가 100원짜리 비  
상장 주식을 주당 3000원씩 판매  
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 취업,  
식당 운영권, 물품 납품권 등을 주겠  
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는가 하면, 액

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지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판매대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상당액은 빼돌려진 것으로 보이  
며 주식 소유자들은 주식을 되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대마산단 내 전기차  
생산업체가 전체 주식(6050만주)의  
14%(849만주)를 갖고 있는 관계회  
사의 전직 직원들로 밝혀졌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2년 4월 경영상의 이유  
로 파기된 상태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전국적인 다단계  
주식 판매 조직을 구성해 투자자 모  
집에 나섰다는 점 등을 토대로 관련

자와 피해자들이 더 있는 데 주목하  
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업체가 ‘전기차 선도도  
사’로 선정된 영광에서 공장을 짓고 가  
동중이며 관계회사의 전직 직원들이  
포함된 점, 자치단체를 통해 관련 기업  
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발표되기도 했  
다는 점 등도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는 게 경찰 추정이다.  
영광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만  
4000~5000명, 금액은 500억원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생산업체와 관계회사는 모두  
이들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동물등록제’가 뭐죠?

## 3개월이상 애견 칩 내장 홍보 안돼 동물병원 한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동물등록  
제’가 보름을 넘었지만 지난 17일 찾  
은 광주시 서구 한 동물병원은 예상  
과 달리 한산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 동물이 늘어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우는 반  
려동물(개)을 의무적으로 해당 자치  
단체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  
하지만 홍보 부족과 동물 몸 안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겹치면서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 이상된  
개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  
식표 부착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6개월간의 계도를 거쳐 어지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오지·  
벽지는 제외된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서 지난 17일까지 등록된 동물은 고  
작 420마리에 불과하다. 광주에서 등  
록해야 할 반려견이 8만8000마리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견  
주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구청이 동물병원에 공급하  
는 내장형 마이크로 칩, 목에 거는 외  
장형 마이크로 칩 등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장형 칩 삽입에 따른 불안감과  
부담도 적지 않다.  
B동물병원장은 “등록하고 받는  
수수료도 적는데, 자칫 삽입한 부위  
를 깨거나 꺼내서 2차 감염  
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에서 책  
입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병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주가 불  
안해하는 칩 이식에 따른 안전성 만  
큼이나 병원측도 부담을 갖고 있다  
는 얘기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니원침 (8736) 김종두



## 홍문표 의원 경찰 조사받아 종자수입 등 금품수수 혐의

종자 수입업자 및 골재 채취업자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홍문표  
(65)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 시절 종자 수입업자와 골  
재 채취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혐의를 완  
강히 부인하며 3차례에 걸친 경찰 소  
환에 응하지 않아 왔다. /연합뉴스



책방의 독서 삼매경 신학기를 앞두고 20일 광주 영종문고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도가니 민원 관련 공무원 과잉 징계 부당”

## 광주지법... ‘시교육청 여론 의식 무리수’ 비판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민원을 적  
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주  
시교육청이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  
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시교육청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비난여론이 거세  
게 일자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이나니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

는 20일 당시 광주시교육청 최모(58)  
과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위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학교  
대책위가 최씨와 면담을 하면서 전  
달한 문건은 성폭력 사건에 관해 교  
육청의 엄정한 대처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

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민원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문건을 정  
식으로 민원사무로 접수하는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처리하  
는 한편 감사담당관실에도 관련 내용  
을 전달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나 관련자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  
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은 영화 ‘도  
가니’ 개봉 이후 일어난 비난 여론에  
밀려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쫓기듯  
문책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최씨가 장학진홍과장  
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년 7월 인화  
학교 대책위 관계자들로부터 학생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건을 전달받고  
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강모 2개월 징계처분했  
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처분이 강모 1개월로 낮  
아졌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시끄러워 TV도 못본다

## 1전비 야간비행훈련 서구 등 주민 피해 호소

“시끄러워서 연속극을 볼 수가  
없어요.”  
광주시 광산구와 서구, 북구 주  
민들이 공군 부대의 야간 비행훈  
련에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  
르면 지난 1월 중 실시된 야간비  
행 훈련으로 텔레비전 시청을 어  
렵게 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에 피해를 주고 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훈련과

관련 구청 홈페이지와 안내 공문  
을 통해 지난 8일~9일(2일간),  
16일부터 17일까지 야간비행훈  
련을 실시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22일부터 24  
일까지 3일간 조종사 양성을 목  
적으로 한 야간비행훈련이 실시  
된다고 알렸다.  
한편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광산구의회에서 소음피해  
소송 경과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  
기 위한 주민대표 대책회의를 개  
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강진 전후 중학생 20명 노로 바이러스 감염

강진군에서 전지훈련 중인 중학교  
축구부원 20여명이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119 침착 대응 자살시도자 극적 구조

○신변을 비판  
해 목숨을 끊으려  
던 40대 여성이  
119 상황실 근무자의 침착한 대응으  
로 무사히 구조.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  
(여·47)는 지난 18일 오후 8시20분께  
여수시 수정동 인근에서 남편과 다툼  
후 수평제를 먹고 차 안에서 번개탄  
을 피워 자살하려다가 119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건졌다든  
것.  
○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의 사  
연을 40분 넘게 들어주며 위치를 파  
악해 구조했다”고 설명.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精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  
(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  
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쫓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  
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  
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 때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दार원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  
레스로 본다.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दार원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  
레스로 본다.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दार원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  
레스로 본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  
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दार원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  
레스로 본다.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दार원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  
레스로 본다.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दार원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락,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  
레스로 본다.

인दार원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201-06-9818호 [공표]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 등!!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월료 :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전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직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현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야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